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체육대회



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27일 송원대학교 청솔관에서 '2025년 보육교직원 체육대회'를 열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광주 지역 가정어린이집 교직원 600여명이 참석해 함께 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개막 행사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 정진욱·정준호·박군택·민형배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체육대회에서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게임이 진행돼 교직원들이 화합을 다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

북광주농협, 추석맞이 찾아가는 미용·칼같이 봉사



북광주농협은 최근 임직원과 '고향생각 주부모임' 회원 10여 명, 칼같이 봉사단과 함께 건국동 영농회 경로당을 찾아가 '추석맞이 미용봉사 및 칼같이 봉사'를 실시했다. <사진> '찾아가는 미용봉사'는 북광주농협이 2023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고향생각 주부모임 회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의 머리를 염색하고, 미용 자원봉사자와 함께 컷트를 제공하며 매일 관내 영농회를 순회해 봉사를 펼치고 있다. 관내 영농회 현장에서 컷트·염색 서비스는 120여 명에게 제공됐고, 부엌칼과 손칼 800여 자루의 칼같이 서비스도 함께 이뤄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인복지시설에 300만원 후원금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인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광주시 서구 유덕로 마린안타요양시설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GGM은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고 있다. 윤몽현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구현되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사랑나눔 물품 전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은 성금으로 '추석맞이 사랑나눔 전달식'을 열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진>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통시장에서 산 물품과 소고기, 동태포 등 추석맞이 명절 음식키트 1200인분을 관내 복지기관 17곳에

전달했다. 임경준 광주전남지역본부 회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사고,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한국천사운동 호남본부, 문화예술공연 봉사



한국천사운동 호남본부는 30일 산수동 푸른길 분수공원과 산수문화마당에서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짜장면 나눔 및 문화예술공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미소문화예술단의 문화예술공연을 시작으로 천사데이 기념식, 푸른길 정화활동, 짜장면 봉사,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봉사활동을 기획한 이정오 사무총장은 "천사운동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운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모든 천사들의 작은 나눔이 크나큰 희망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빛고을예술단, 남구가족센터에

다문화가정 지원 생활용품 전달



사단법인 빛고을예술단은 30일 광주시 남구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빛고을예술단 제공>

TV프로그램		10월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1만화 기획 시청자와 만날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55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55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0]	00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키즈 펫 도감(재)		
[11]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45 베베핀(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긴머리 휘날리며(재)	00 12 MBC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위시켓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위시켓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보석에나 견강 수다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동물터비(재) 40 사사건건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주디세이(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D-30 2025년 APEC 정상회의 특별생방송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테마스페셜	
[5]	00 KBS 뉴스 10 D-30 2025년 APEC 정상회의 특별생방송	00 Why? 15 스킵킹 30 꼴찌 영화가 좋다	10 UN 창설 80주년 특집 다큐 잊혀진 영웅들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일꾼의 탄생 시즌 2	50 친밀한 리플리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은수 좋은 날(재)	00 손석희의 질문들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30 라디오스타	55 우리들의 발라드(재)	
[11]	3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스튜디오 K			
[12]	00 KBS 중계식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55 닥터 365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이것이 진짜! 파미르 고원 영동한 양을 찾아 히소르〉 07:0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07:30 엄마 까투리 07:45 레인보우 버블잼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수상한 방송국 08:50 샤샤 앤 마일로 09:20 세계 극한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왔다! 내 손주(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블랙스 16:10 딩동댕 딩동댕 16:30 수상한 방송국(재) 17:00 페파 피그 17:10 티시태시
17:40 티시태시와 춤추고 노래해요! 17:50 사내수공업가수 -다비드 봉(재) 18:10 EBS 뉴스 18:30 건축탐구 - 집 19:20 고향민국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화산 트레일 지구의 뜨거운 심장, 브로모로!〉 21:35 한국기행 〈응답하라 조상님 3부 사랑은 대추 맛, 그리움은 조청 맛〉 21: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22:45 PD로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일(음 8월 10일 癸卯)	☎ 010-9790-8237
	36년생 반드시 억제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철저하면서도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60년생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겉으로는 쉬위하지만 갈수록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84년생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96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을 속 시원하게 처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9, 70	42년생 본인이 의도 하였던 방향과 정반대로 갈 수도 있는 정황이다. 54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66년생 진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면모이나라. 78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이익이다. 90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02년생 소중함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2, 75
	37년생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49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편안해질 것이다. 61년생 길운이 순조롭게 흐르니 저절로 흥겨운 컷노래가 나올 것이다. 73년생 과신하다 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85년생 밝은 지혜로써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97년생 비수한 것과 똑 같은 것은 다르다. 행운의 숫자 : 19, 87	43년생 가벼운 연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다. 55년생 지난간 일이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대두되나 대수롭지 않다. 67년생 어떠한 말에도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79년생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1년생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03년생 망심한다면 실수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99
	38년생 경중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야 할 때이니라. 50년생 확실하다면 사전에 변경해도 무방하다. 62년생 시작은 좋지 만 원활한 마무리가 아쉽다. 74년생 주장이나 의견을 속시원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86년생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98년생 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이다. 행운의 숫자 : 76, 67	44년생 대단히 매끄럽게 풀려나가는 국세이다. 56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눈에 띈다. 68년생 성사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80년생 순서와 체계가 절실히 요청되는 과정상에 놓여 있다. 92년생 소기의 성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판시세에 놓인다. 04년생 지나친 집착은 심신만 파괴하게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06, 76
	39년생 속을 들여다볼수록 구조가 복잡하다. 51년생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63년생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언행하는 이가 보인다. 75년생 객관적이지 못해서 사실상 이루어질 가능성은 약하다. 87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99년생 다시 한번 고려했다 해도 좋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5, 88	45년생 도모하기 힘든 일이니 포기하는 것이 맞다. 57년생 망설임이면 분명히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느니라. 69년생 결모습에 현혹 된다면 상당한 낭비를 부를 것이다. 81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93년생 우회하더라도 자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05년생 우연히 맞닥뜨릴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69
	40년생 호사다마요, 재운지마에 비유할 만하므로 좋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요, 나쁘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52년생 완연전히 반전 될 수도 있는 기운이다. 64년생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6년생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8년생 실질적인 내용이 절실하다. 00년생 과정을 중시하자. 행운의 숫자 : 03, 97	46년생 작으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이다. 58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70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것이다. 82년생 경중을 제대로 파악하여 긴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94년생 어려움은 지나갔으니 안심해도 된다. 06년생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더라도 대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28, 95
	41년생 현재의 시점에서 빈틈을 보인다면 치명적이나라. 53년생 허상일 뿐이니 빨리 포기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다. 65년생 값어치 있게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자. 77년생 방심하다가 급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89년생 상대적으 작용할 수밖에 없는 판도에 놓여 있다. 01년생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27, 73	47년생 현재진행형 행운도 없지만 대고 없이 무난하다. 59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71년생 아는바라 하더라도 확인과 점검을 습관화하는 것이 용이하다. 83년생 아작은 모호하니 추이를 지켜봐야 할 판국이다. 95년생 매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되리라. 07년생 시기가 아니라 의지의 유무가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24, 89